

농가 가계운영 지도사례

류 정 숙

논산시농촌지도소 생활개선계장

농촌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농촌도 도시못지 않게 소비생활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논산지역에 살고 있는 농가의 가계운영 현황을 파악해 봄으로써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가계비를 지출하고 있지는 않은지, 건전하지 못한 소비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단해 보고자 한다.

1. 농가 가계 현황

가. 농가소득

(단위 : 천원)

구 분	계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수입
전 국	21,803	1,469	6,931	4,403
논 산	24,393	14,509	5,762	4,122

- 지대별 농가 소득

(단위 : 천원)

구 분	평 균	도시근교	평 야	중 간	산 간
농가소득	21,803	23,513	23,701	22,405	19,266
농업소득	10,469	8,182	12,465	11,281	10,512
농외소득	10,469	8,182	12,465	11,281	10,512
이전수입	6,931	10,663	6,834	6,599	4,630

- 경영주 연령별 농가소득

(단위 : 천원)

구 분	평 균	30세미만	30~40	40~50	50~60	60세이상
농가소득	21,803	39,023	24,989	25,503	24,086	18,120
농업소득	10,469	12,979	13,950	14,664	11,623	7,725
농외소득	6,931	22,614	8,086	8,003	7,549	5,307
이전수입	4,403	3,430	2,953	2,836	4,914	5,088

나. 농가가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계	음식물비	주거비	광 열 수도비	교육교양 오 락 비	교 제 증여비	관 혼 상제비	보 건 의료비	기 타
14,782	3,118	1,187	484	1,703	3,450	1,755	1,001	2,084

다. 농가자산현황

(단위 : 천원)

계	고 정 자 산	유 동 자 산	유 통 자 산
158,171	134,334	4,098	19,739

라. 농가부채 현황

(단위 : 천원)

계	생산성 부채	가계성 부채	채무상환용
9,163 (논산 8,806)	7,331	1,110	772

자료 : 농림부 『농가경제통계』 1995

농가 소득은 도시 근로자 (22,930천원) 수준이지만 평균 9,163천원의 부채와 5,543천원의 경영비가 부가되어 농가의 실제적 수입은 도시 근로자 소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부채중에 생산성 부채는 상환 가능성이 있겠지만 가계성 부채 100여만원은 곤란할 것으로 생각되며 연령별 소득 분포를 보면 30세 미만의 젊은층의 경영주의 소득이 월등히 높고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소득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경영주의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영농형태와 고령층의 수도에만 의존하는 재래 식영농의 차이로 사료된다.

농가의 가계비 구성을 보면 음식물비가 가계비의 21.1%로 도시 근로자(28.8%)보다 낮은 것은 자가 농산물 사용 때문이며, 가계비중에 관혼상제비 비율이 1,755천원으로 관혼상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2. 농가 소비 생활 형태

농가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어느정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기 설문 조사된 농가 가계부 기록 실태와 소비 행동 조사결과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가. 조사 결과

1). 조사대상 지역 특성

충청남도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논산은 벼농사와 시설 딸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복합영농을 하는 지역이다. 특히 딸기는 전국 재배 면적의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논산 지역의 농가 소득은 24,393천원으로 (충남 평균 22,516 108%) 비교적 높은 편이다. 가계부 기록 농가는 2개읍 14개면 2개동으로 구성되어진 논산시 지역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복합영농농가 53%, 전업농 33%, 과수 전업농 7%, 기타 7%로 구성되어 있다.

2) 가계부기록 여부에 대한 조사

(N = 60)

특성 및 구분	빈 도	%
○ 가계부 기록 여부		
① 한 다	46 (198)	77 (44)
② 기록하다 중단	10 (144)	17 (32)
③ 안한다	4 (108)	6 (24)
○ 중단한 이유		
① 기록이 어려워서	2 (27)	20 (19)
② 필요성을 못느낌	4 (24)	40 (16)
③ 기록이 귀찮아서	4 (63)	40 (44)
④ 시간이 없어서	(30)	(21)

- 자료 : 논산시농촌지도소 『농가 가계부 기록에 관한 설문조사』 1995
충남농촌진흥원 『농가가계부기록에관한설문조사』1995, ()내는 진흥원 수치임

옛말에 “추수해서 이것 저것 다 제하면 장 담글 콩값이 모자란다” 라는 말이 있었다. 한마디로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 일 것이다.

지금도 가계부 기록 설문 조사를 하다보니 기록을 중간에 포기한 농가의 이유에 “필요성을 못느껴서”, “기록이 귀찮아서”로 대답한 농가중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서 재미가 없다” “매월 일정한 수입이 없고 지출만 있어서 쓰기가 싫다” 라는 심적 요인이 내포 되어 있다.

때문에 경제 원칙을 내세워 세세히 수지 타산을 따지지 않고 주먹 구구식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농가 경제는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이 일정치 않아 계획적인 가정 경제생활 또한 기대 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3)가계부 기록 농가의 일반적 분석

(N=60)

특성 및 구분	빈도	%
○ 연령 분석		
① 30세 이하	1	2
② 31 ~ 40	22	36
③ 41 ~ 50	37	62
○ 학력분석		
① 무 학	.	.
② 초 졸	7	12
③ 중 졸	24	40
④ 대 졸	4	7
○ 예산 수립 항목별 지출(음식물비, 교육비, 피복비)		
① 항상 그렇다	8	13
② 때때로 그렇다	38	64
③ 그렇지 않다	14	23
○ 가계부 기록후 수입 지출 비교		
① 항상 그렇다	15	25
② 때때로 그렇다	25	42
③ 그렇지 않다	20	33
○ 시장에 가기전 구입 물건을 미리 생각하거나 메모한다		
① 항상 그렇다	38	63
② 때때로 그렇다	16	27
③ 그렇지 않다	6	10
○ 물건값을 치르면서 영수증을 받고 그 내용을 확인 한다		
① 항상 그렇다	27	45
② 때때로 그렇다	27	45
③ 그렇지 않다	6	10

자료 : 논산시농촌지도소 『농촌여성소비행동조사』1997

논산에서 가계부를 기록하는 농가는 30세 이하가 2%, 31 ~40세 36%, 41~50세가 62%이고 50세 이상은 가계부를 기록하는 농가는 없었다. 학력은 국졸이 40%, 고졸이 4%, 대졸이 7%로 젊은층의 고학력 소지자가 가계부 기록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농촌 주부의 고령화와 고학력 수준의 젊은층들의 농촌 정착의지가 아직도 미약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가계부 기록에 관한 질문중 예산을 수립하여 항목별 지출을 계획하는 농가가 77%로 가계부를 기록하는 농가는 예산 수립후 예산 한도 내에서 음식물비, 교육비, 피복비 등의 순으로 지출하였으며 가계부 기록후 수입, 지출을 비교 분석한다고 응답한 농가중 항상 그렇다가 25%, 때때로 그렇다 42%, 그렇지 않다 33%로 수입이 고정적이지 못하고 지출 규모도 농번기와 농한기에 따라 크게 차이나는 농가가 수입과 지출의 결산 및 적자 분석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를 기록하는 농가 대부분(90%)이 시장에 가기전에 구입할 물건을 미리 생각하거나 메모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있으며, 가계부 기록 농가 대부분이 예산의 수립, 수치 정리표의 집계와 계획적인 지출, 결산등 복합영농농가 일수록 합리적인 가계 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물건구입 행동특성

(N=60)

특성 및 구분	빈도	%
○ 계획하지도 않았던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입한다		
① 항상 그렇다	3	5
② 때때로 그렇다	38	63
③ 그렇지 않다	19	32
○ 물건을 사기전 여러 군데 상점에서 가격, 품질 등을 비교해 본다		
① 항상 그렇다		22
② 때때로 그렇다		28
③ 그렇지 않다		10

(n=60)

특성 및 구분	빈도	%
○ 물건 구입시 불만족 또는 피해 여부		
① 있 다	50	83
② 없 다	10	17
○ 불만족 스럽거나 피해를 본 물품 (n=50)		
① 가 전 제 품	21	42
② 주 방 기 구	7	14
③ 의 류	8	16
④ 식 품	1	2
⑤ 건 강 식 품	10	20
⑥ 도 서 류	3	6
○ 불만족스럽거나 피해를 본 물품에 대한 처리 문제 (n=50)		
① 판매업자에게 항의	27	54
② 향후 그 회사 제품 불이용	11	22
③ 가족, 이웃에게 불만 호소	3	6
④ 소비자 단체 처리 의뢰	6	12
⑤ 행정 관청 처리 의뢰	.	.
⑥ 그냥 참고 지냄	3	6
○ 외제품 구입 여부 (n=60)		
① 자 주 구 입	7	12
② 가 끔 구 입	21	35
③ 거의 구입 않음	32	53
○ 구입 외제품의 종류 (n=28)		
① 일 상 용 품	15	54
② 주 방 용 품	7	25
③ 가 전 제 품	5	18
④ 식 품 류	1	3
⑤ 의류·가구류	.	.

자료 : 논산시농촌지도소 『농촌여성소비행동조사』1997

가계부를 기록하는 농가의 84%는 물건을 사기전에 여러 군데 상점에서 가격, 품질을 비교해 본 후 물건을 알뜰하게 구매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건을 구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식품류와 일상용품의 경우 가격과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옷, 신발류는 가격과 품질을, 가전제품은 품질과 사후 서비스, 가구류는 품질, 디자인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건 구입시 불만족 또는 피해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83%가 물건구입으로 피해를 본 적이 있으며, 피해를 본 물품은 가전 제품 42%, 건강식품 20%, 의류 16%, 주방용품 14%의 순으로 나타나 농촌 여성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은 가전제품과 건강 식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를 본 물품에 대한 처리는 판매업자에게 항의 54%, 향후 그회사 제품 불이용 22%, 가족, 이웃에 불만 호소와 그냥 참고 지냄도 각각 6%로 나타났지만 소비자 단체에 처리를 의뢰한 경우는 12%로 농촌 소비자의 소비 생활에 대한 지식은 비교적 높았으며, 외제품 구입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주 구입 12%, 가끔 구입 35%이었으며, 거의 구입하지 않음이 53%로 가계부를 기록하는 농가는 대부분 외제품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입한 외제품의 종류는 호기심에 의한 일상용품, 주방용품, 가전제품, 식료품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제품을 구입한 이유는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으며 그냥 좋은 것 같다는 순으로 나타났지만 외제품 구입은싼 가격에 대한 호기심과 원산지와 생산국의 미확인, 식품의 경우는 구별이 안되어 어쩔수 없이 구입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소비행동에 대한 의식

(N=60)

특성 및 구분	빈도	%
○ 소비자 단체에 대해 잘 아십니까		
① 잘 안다	14	23
② 조금 안다	37	62
③ 모른다	9	15

(N=60)

특성 및 구분	빈도	%
○ 소비 절약은 농촌사람이 더해야함		
① 그렇다	14	23
② 모르겠다	5	8
③ 그렇지 않다	41	69
○ 농촌의 물가는 도시보다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싸다	8	13
② 비슷하다	14	23
③ 비싸다	38	64
○ 소비자 교육 참석 여부		
① 참석하겠다	40	67
② 모르겠다	17	28
③ 참석 않겠다	3	5

농촌여성의 거의 대부분은 소비자 단체에 대해 잘 알고는 있으나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농촌생활과학지 제 18권 1호('97. 3월 발행)에 의하면 농가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95%에 불과하며 농가 소비 성향도 68%로 도시 가구(6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는 농촌 사람보다 도시 사람이 소비 절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대다수 응답자는 농촌이 도시 보다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소비자 교육을 실시 한다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소비생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맺음말

지금까지 논산시 가계부 기록 농가를 중심으로 가계부 기록 상황과 일반적 소비 행동, 물건 구입 행동의 특성을 살펴 보았으나 실제로 대부분이 가계부 기록은 하고 있지만 『금전출납부』개념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계획적인 소비 활동보다는 필요에 의한 구매 활동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한정된 수입으로 높아지는 물가와 생활향상에 의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계부 기록 지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계획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해야할 것이다.